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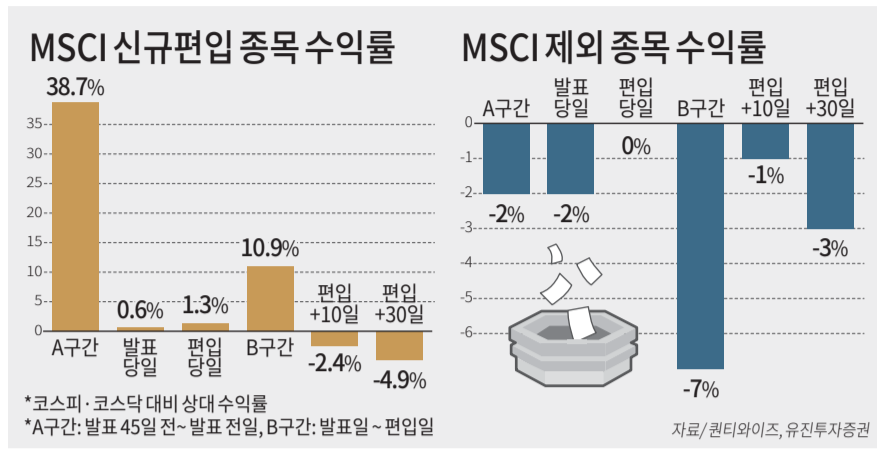
한 달 남은 MSCI 종목 편입... 유력 후보는 F&F·엘앤에프

11월 12일 MSCI 지수 변경 편입 성공시 자금유입 기대 “양호한 펀더멘털, 조건 충족”

다음달 12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반기 리뷰를 앞두고 어떤 종목들이 추가되고 제외될 지에 주식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F&F(코스피)와 엘앤에프(코스닥)가 꼽힌다.

MSCI는 국가별, 산업별, 테마별로 다양한 지수를 구성해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탓에 종목 변경은 주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곤 한다. 지수에 포함된(편입) 종목들은 특정 주가지수에 속한 종목을 담으면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식으로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

1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MSCI KOREA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은 8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0일 MSCI 발표에 따르면 MSCI Korea 지수의 총수익률은 한 달간 -



6.53%, 3개월 기준 -13.17%로 MSCI 신흥국 지수 총수익률(한 달간 -3.94%, 3개월 기준 -7.97%)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지수의 편·출입은 5월과 11월의 반기 리뷰, 2월과 8월의 분기 리뷰 및 상시 관리로 나뉘어 진행된다. 보통 반기 리뷰 때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되고, 상시 관리를 통해서는 대형 기업공개(IPO) 기업의 조기 편입 등이 이뤄진다. 지난 8월 카카오뱅크가 상장 당일 상시 관리를 통해 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된 바 있다. 변경은 주가지수일 기준 시가총

액이 커진 종목을 편입하고, 시가총액이 준 종목을 편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주요한 시가총액과 함께 유동시가총액, 유동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증권업계에선 오는 11월 반기 리뷰를 앞두고 시가총액이 증가한 엘앤에프와 F&F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2차전지양극재 생산 기업인 엘앤에프의 주가는 8월 리뷰 발표 전인 지난 7월 12일 9만3400원(중가 기준)을 기록한 후 이번 달 12일 18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7월 대비 9만4600원(101.3%)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섬유

·의류 제조업체인 F&F의 주가도 53만 5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29만원(54%) 상승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 종목은 양호한 펀더멘털과 함께 이미 시가총액 5조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편입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장 후 지수 조기 편입에 실패했던 크래프톤의 편입 가능성도 ‘중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MSCI는 상장 초기 종목의 유동비율을 항상 저평가하는 패턴을 보여 왔기에 지수 편입 전망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엘앤에프는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5위(177억원)를 차지했다. 크래프톤은 지난주 기관 순매수 11위(280억원)에 올랐으며, 지난 12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06%를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외에 카카오게임즈와 에스디바이오센서, 일진머티리얼즈도 편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PO 대어(大魚)였던 현대중공업은 최소 거래기간(3개월)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유동 시가총

액이 낮아 11월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의 경우)최소거래기간요건을 충족한 뒤 내년 2월 정기 변경 이후 지수 편입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미리 매수해뒀을 때 수익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원은 “2020년 이후 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은 편입을 예상해서 미리 사는 구간(표 ‘A구간’)에서 시장 대비 평균 39% 초과 수익, 발표 후 11%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수 편입만큼이나 편출 예상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발표된 후 해당 종목들이 시장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편출 예상 종목으로 제일기획, 신세계, 휠라홀딩스를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 롯데쇼핑, CJ대한통운, BGF리테일, CJ를 꼽았다.

/양유경 기자 noon@metroseoul.co.kr

예탁원, ‘벤처넷’ 개시... 업무 효율성 UP

2년 반 개발... 18일 정식 오픈 벤처투자 백오피스업무 효율화 투자조합운용 지원 등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이 벤처투자시장 참가자 간 중앙집중 전산네트워크연계망인 ‘벤처넷 시스템’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벤처투자시장은 최근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되는 등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지만 투자 재산관리 백오피스 업무가 여전히 팩스나 이메일, 토크서비스 등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재산 관리 백오피스 업무의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고도화를 목표로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벤처넷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후 약 2년 반 동안 업계 현황을 청취한 후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 등을 거친 끝에 벤처넷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게 됐다.

벤처넷 시스템은 크게 투자조합운용 지원 및 투자자정보·명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투자조합운용지원 서비스의 경우 ▲벤처투자 운용에 필요한 기본정보 관리 기능 ▲각종 운용지시 및 운용지시 처리 결과 집중전달 기능 ▲투자조합 투자자산 잔고매칭 자동화 기능 ▲투자조합의 증권회사 계좌정보 자동수신 기능을 제공한다. 투자자정보 명부관리 서비스의 경우 ▲관리증서 전자서명 발급·전달 기능 ▲온라인 투자자정보 관리·명부작성 및 투자자 열람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벤처넷 시스템 이용이 활성화 되면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오기·누락 등이 방지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벤처넷에서 관리되는 벤처투자내역을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벤처투자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벤처캐피탈과 수탁기관 간 투자재산 관리업무 전반의 전자화(Paperless), 실시간화, 자동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벤처넷 시스템이 업계에 정착하도록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유경 기자



강민선 하나금융투자 WM총괄본부장(왼쪽부터), 임상수 하나금융투자 금융상품추진본부장, 이태형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WM센터장,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본부장, 김용태 하나은행 강남파이낸스PB센터지점장, 이종승 하나금융투자 글로벌총괄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투, ‘강남파이낸스WM 센터’ 오픈

특화 맞춤형 상품 발굴

하나금융투자가 서울 강남파이낸스 WM센터를 오픈했다.

강남파이낸스WM센터는 테헤란로에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 4층에 위치하며, 하나은행 강남파이낸스PB센터와 함께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 증권과 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강남파이낸스WM센터만의 특화된 맞춤형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VVIP손님에

게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투자컨설팅은 물론 하나금융투자의 베스트리서치의 다양한 국내외 주식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의 투자은행(IB) 업무와 법인 자산관리 서비스도 지원해 강남권 법인들의 금융지원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손님들의 금융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양유경 기자

삼성자산운용, 메타버스 액티브 ETF 상장

약 70% 게임·엔터 등 콘텐츠 기업

삼성자산운용은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할 국내 메타버스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K-메타버스 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을 뜻한다.

KODEX K-메타버스 액티브 ETF는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비교지수는 Fn가이드 K-메타버스 지수이다. 국내 메타버스



시장은K-POP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와 높은 성장에 예상되는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하이브 9%, 펠어비스 8%, 크래프톤 8% 등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기업 비중이 약 70%

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메타버스 산업이 메가트렌드의 초기 시장인 만큼, 관련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에 주목해 지수 대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차별화를 뒀다.

액티브 ETF는 매니저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5월 25일 상장한 KODEX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ETF는 출시 이후 19.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장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본부장은 “현재는 메타버스 시장의 태동기로 아직 메타버스의 정의도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액티브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며 “메타버스 시장이 성숙할수록 타사와 차별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대신증권 국내 주식 4만5000주 경품 이벤트

대신증권이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 ‘크레온’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45,000주 크레온이 쏜다’ 이벤트를 오는 12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 ‘주식 선물하기’, ‘중개형 ISA 개설’ 등 세 가지 이벤트로 나눠 진행한다.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 이벤트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3만3000명에게 한국전력, SK네트웍스, LX홀딩스 주식 중 1주를 증정한다.

보유주식을 지인에게 선물하면 총 6600명을 추첨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식 1주를 제공하는 ‘주식 선물하기’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중개형 ISA 개설’ 이벤트는 중개형 ISA를 개설 및 이전한 고객 총 5400명에게 입금액에 따라 SK네트웍스, LX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식 중 1주를 추첨으로 제공한다. 중개형 ISA에서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SK네트웍스, LX홀딩스 주식 중 1주를 추가로 제공한다.

/양유경 기자